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천마유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비에 대해서는 상담해 드립니다. <লেখক: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06호
서기 2001년 2월 14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진실하게 관해야 내안의 보배 찾아

예불때 하는 오분향의 참뜻

문 저녁 예불시간에 맨 처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경향 하고 염불을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요? 스님들께서 하실 때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마음 속으로 그 뜻을 새깁니다만, 마음 안에서 뜻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항상 그것만 잘해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만 잘 알아도 우린 성불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먼저 계향이나, 스님들도 처음 출가를 하면 계향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째, 부처님의 도량을 누가 되게 해서 안되고 은사에게 누가 되게 해서 안되고 셋째,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 안되는 것. 또 넷째는, 항상 상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상대성 원리로서 다가오는 거, 부딪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어떠한 잘못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거기에 있으니까, 부딪칠 몸뚱이가 있으니까 부딪치는 거기 때문에 부딪치는 겁니다. 내 몸뚱이가 없는 데 어떻게 부딪칩니까? 무효지.

그렇기 때문에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있으니까 부딪치는 거지, 잘하든 못하든 내 탓이죠. 잘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못했으면 '못한 것도 너니까 잘하게끔 하는 것도 너' 하고 거기다 맡겨야 되죠. 그래서 안과 밖의 어떠한 부딪침도 내 탓으로 돌리고 돌아오고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스스로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스스로 부드럽게 말이 나갈 수 있고 스스로 부드럽게 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나갈 수 있는 제향입니다.

그리고 정향이라는 자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심봉을 딱 거기다 정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전부 맡겨 버리니까, 거기 심봉이 딱 박혀서 요지부동 안하고 서 있는 것을 주장지라고 하기도 하고 심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완벽하게 셋을 때는 바로, 우리가 들고 내는 그 실습은 벌써 초심자일 때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생활 자체가, 앉으면 좌선이요, 서면 입선이요, 일을 하면 행선이요, 누워서 자게 되면 와선이니 그 모두가 참선 아닌 게 없다. 생활이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 법이 생활이다 그대요.

그러니까 정향(定香)이라 하는 것은 한 데다가 모아서 익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익어진 거를, 이제는 내 주장자가 심봉이 박혀 있으니까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계끔 됐을 때 그걸 정(定)이라고 합니다. 정향, 그게 완전히 박혀졌을 때는, 즉 말하자면 완전히 심봉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때는, 들고 내는 살림살이가 여여하게 들고 낸다 이겁니다. 여여하게 들고 내는 동시에 그게 여여하게 돌아가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지혜로서 여여하게 하니까 자기 말이 법이 돼서 그대로 들고 나는 게, 모두 놓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또는 꺼내도 풀지 않고, 정향에서 완전히 들고 내는 데 손색이 없다면 그때는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해향(解香)이라고 했습니다. 해향! 그래서 지혜로워지면, 그때는 들어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천 개, 만 개를 놓어

두 두드러짐이 없죠. 허공에 꼭 찬 마음을 다 꺼내도 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평등공법(平等空法)에 의해서 나오는 법 아닌 법입니다. 놓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풀지 않는다, 해향이 있습니다. 해향이 완성되면 꺼내도 풀지 않고 또 놓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계끔 완성된다면 마음이 다 익었다는, 익어간다는 얘깁니다. 외부와 내면, 즉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관찰할 수 있고, 관찰을 잘해서 들고 내는 데에 실천과 실습을 열심히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해향입니다.

그리고 해탈향이란 무엇이나? 삼라만상 일체 만물만생이 무명에 묶여있는 것을 다 들고 내면서 관찰해서 뜻을 같이 하면서 다스리면서 항상 밝아서 여여하게 걸림없이 나가는 도리가 바로 해탈향입니다.

해탈지경향. 이것은 과거, 미래, 현재, 삼라만상, 대천세계, 일체 만물만생을 한

답 욕심이나 착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바로 남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욕심이나 착이나 또는 남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안 보이는 세계에서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다. 한마음의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음이 돼야 한마음의 열쇠가 나옵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이 열쇠를 받고 본다면 능력을 이용해서 '에이! 너 맛 좀 봐라!' 하고 대변에 이러한 마음이 나오니 자동적으로 무의 열쇠를 받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자신에게 열쇠를 맡기니까? 자신이 애비이고 지금 현재 자신이 자기 아들이라면 어떻게 아들한테다가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아들이 아끼지하고 둘이 아닐 때에 비로소 열쇠를 받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마디, 한생각에 법이 깰어져 있는 사람은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생명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

다. 그래서 한 번 체험하면서 상대방과 나와 다시 죽는 법을 또 배워야 된다. 세 번째, 상대방과 나와 더불어 같이 나눌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과 나와 죽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나와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재차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단계 아닌 단계를 모두 올라와 보세요.

습니다. 그래서 탁발을 나갈려고 하니까 은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탁발을 하러 갈려면 저기를 가야 할텐데... 마을로 가는 길이고, 그 길로 가면 지름길이니라, 약부터 지어 오너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약을 지어 오다가 마을에 틀러서 집을, 거기 집이 있으니 그 집을 다 가지고 오너라' 했거든요. 그래서 허풍지

그래서 자기 누비 두루마기를 벗어서 그 여자를 싸고 짐을 지고 오라고 한 지계에, 가져간 소쿠리에다 모자를 얹고 짊어지고 오다가 스님께서 짐을 가져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짐을 맡기신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지런히 가다가 생각을 딱 해 보니까 스님께서 짐을 저오라고, 소쿠리를 지게에 얹고 가라고 하였고, 내가 지금 아파서 생명이 위독하니 약부터 지어 오라고 하였고... 그 말씀이 그만 절감이 된 겁니다. '바로 이거로구나. 스님이 편찮으신 게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운 게 아니라, 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집이었고 바로 이분이 생명이었구나. 그럼 스님의 생명이 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이 바로 스님의 생명이란 어찌될까? 이게 무엇일까? 스님은 왜 자기의 생명이란 했을까?' 하는 마음의 의정을 내면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가서, 가다가 보니까 정신을 차려서 바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누고 보니까 아무것도, 나무도 없고 방은 찬데 어떡합니까? 아픈 사람을 그냥 놔두고, 겨우 정신을 차린 사람을 그냥 놔두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사흘을 나무를 해서 때우고 또 나무를 해다 쌓아 놓곤 탁발을 하러 갔습니다. 탁발을 하러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습니다. 나무 밑에서 기댄 채 배도 고프고 기온도 없고 해서 걸망을 진 채 그냥 거기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부자집 마나님이 초저녁에 잠을 자다 꿈을 꾸니까 아, 바깥에 큰 사자가 말입니다. 금 옷을 입고 머리에도 가 관을 쓰고, 사자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애야무개야, 내가 춤고 배가 고프고, 목 좀 축이게 따뜻한 물 한 그릇하고 옷 좀 입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깜짝 놀라 깨서는 영감님을 깨웠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는 하인들을 불러서 나가 보니까 아, 어느 스님이 두루마기도 없이 달달 떨면서 추운 채로 으리고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워서 모시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꿈에 배고프고 춥다는 그 말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서 하인을 시켜서 먹을 것을 뜨겁게 해다가 대접하고 부지런히 속에 입을 옷과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해서 입혀주니까, 스님은 빨리 탁발을 하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절이 망가져서 불사를 위해서 기도를 붙이고 지금 탁발을 하러 가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릴텐데 제가 탁발을 안하면 안 됩니다.' 하고선 그냥 부둥부둥 나오니까 그 부자집 부부가 있다 하는 소리가 절 짓는데 얼마가 들은은 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모르나 스님께 여쭙보면은 아실 겁니다' 하니까 공양미하고, 옛날에는 모든 걸 소에다 싣고 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당나귀에다 싣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집도 절 지을 돈을 갖다가 시주를 하기 위해서 당나귀에다가 몇 십 석을 싣고 가서 불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절을 짓고 양식이 풍부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부자집 부부가 부모로 모셨던 조상이 바로 그 스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스님이 전자에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나 공을 들이고 했기 때문에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연으로, 부모로 인해서 살던 그 재산을 그저 삼분의 일을 절대바 바쳤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은 가고 음이 없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놓을때 문제 해결

남 망하게 하는 마음이면 열쇠 못 받아

꺼번에 놓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한꺼번에 꺼내도 풀지 않고, 한 바다를 삼켜도 두드러지지 않고, 한 바다를 꺼내도 풀지 않는다. 이러한 광대한 한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두 자기와 둘 아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고 그러한 평등공법에 의해서 아주 슬기롭고 참되게 항상 이끌어 나가는 게 밝아서 여여하게 걸림없이 구족한 것을 해탈지경향이라고 합니다.

말을 어떻게든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 할지라도 잘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히 내가 진짜 발을 한발 떼어놓을 수 있는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가 걸어다니는 그것이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닌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순간 과거에 다녀온 곳을 금방 갔다면 다 알듯이,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바로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오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뜻을 되새기셔서 참답게 생활해 나가기 바랍니다.

몸 벗어나 수행하는 경지

문 삼배 합장하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공부를 해 나가다가 얹이 막힌 듯 어둡고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삼배를 뒤어놓고 상에도 쓰달리지 아니하는 공부란, 마치 옛날의 진묵대사님이 몸은 가 부좌 한 채로 가만히 앉았었고 그 정신은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천상 천하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렇듯 몸의 굴레를 벗어나 수행하는 것이 어떠한 경지이고, 그러한 것이 확인이 수행하여야 할, 삼배를 뒤어 넘고 상없이 나눌 수 있는 바른 공부 길인지요?

다. 그래서 가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때인가 또 걸립니다. 그 래가지고 버릇을 똑똑이 고쳐주게 되죠. 그렇기에 이 공부를 해서 능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나를 깨우쳐 보지 않는다면 내 몸과 둘이 아님을 몰라요. 또 내 자리 네 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내 아픔 네 아픔이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부모가 둘이 아 라는 걸 모르고, 네 자식 내 자식이 둘이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저질러지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그랬대요. 절에서 공부하는 도반들 끼리 공부를 하다 밑의 사체가 구름을 타고 가서는 나쁜 짓을 늘상 하거든요. 사형이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구름을 타고 가서는 또 그러거든요.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몸뚱이는 거기 놔두고, 자기가 허수아비로 가서 연방 약하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 글썽 얼마나 괴심한 말입니까. 그래서 사형이 가만히 있다가 그 구름 타고 가는 걸 딱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체가 사형에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다시 그 짓을 또 한다면 너 그만 안 두리라고 하니까 그러셔야 '가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구나' 그러고선 그 짓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다는 셈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의 위치에 올라서야 알지, 아니, 소학교 학생이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원 학생의 과정을 어떻게 알니까? 거기까지 올라와야 알죠.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것을 놓는 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하는 그것이 방하착(放下)이라든가 첫째, 모든 잡념과 전자에서부터 익혀온 습성을 다 녹여버리고 자기의 참 생수 갖을 봐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이차적으로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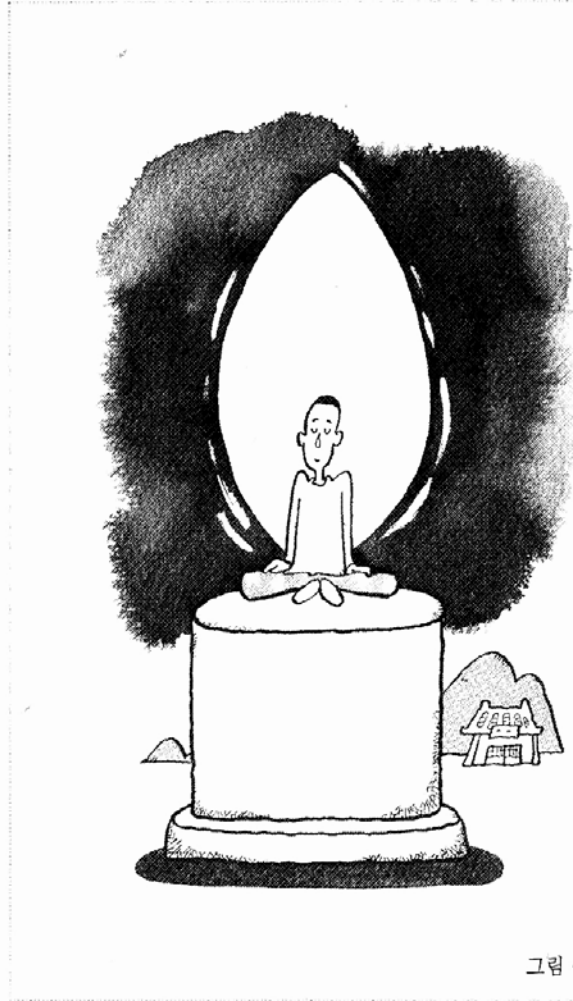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뿌리에 물 주면 잎새 · 줄기 싱싱하듯

근본 주인에 맡기고 살면 마음 편해

조상을 위하는 이유 뭐가요

문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절에 다니시면서 가족과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정성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성을 들이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내고 조상을 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답 옛날에 스승과 제자들이 살았어 랍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서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탁발하러 나갔었는데 그러다 막내에게 그 탁발을 주어야

등 은사의 말씀을 듣고서 고개를 넘어 지름길로 가느라고 험악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느 부인이 말입니다. 호랑이가 덤비니까 세살 먹은 어린애를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이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업고 가던 포대기를 돌돌 말아 쌓아서 거기 놓고 또 자기 옷을 벗어서 거기다가 싸서 놓고 벌거벗고 호랑이한테 머리를 풀어서 산발을 하고 앞으로 가는데, 살은 얼어서 새빨갭게 되고 눈은 보일 듯 말듯 하면서 별처럼 반짝거리고 생명을 내건 그 어머니가 차츰차츰 호랑이 앞으로 가니까 호랑이가 그만 뒤로 물러서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20면으로 계속

가까운 안위를 보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신 288쪽
값 6,000원
여서아문